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서 감동과 힐링을

### 백제세계유산센터, 2016년부터 팸투어 추진 세계유산·지역관광자원 연계한 상품 개발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익산 미륵사지 등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우수한 문화역사자원과 주변 관광 명소를 연계해 2016년부터 언론단체, 여행사,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에 걸친 전북도청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추진한 팸투

어를 포함해 올해에만 13차례, 참여자는 320명에 이른다. 팸투어 사업은 당초 문화재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작, 2020년부터 공모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백제 세계유산센터는 사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거의 매년 1억5,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북과 충남에 소재하는 지역 관광협회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해 지역 관광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팸투어는 세계유산 등 관광상품을 활용한 국내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순 답사에서 벗어나 문화유산해설사의 감칠맛 나는 스토리텔링과 환포돛배 체험, 피로를 푸는 족욕 체험, 전통 맛집투어 등을 감동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와의 소통과 설문지조사를 통해 홍보전략 및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진화시키고

있으며 세계유산 활성화방안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팸투어 대상이 되는 세계유산은 왕궁유적, 능묘유적, 사찰유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주시대 왕성인 공산성, 사비시대 왕궁 터인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왕궁구조의 모범을 보여주는 왕궁리유적은 백제 왕궁문화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다. 동아시아 가장 규모가 큰 사찰터인 미륵사지, 한국 평지 가람의 원형을 보여주는 부여 정림사지는 당시 불교 문화의 찬란함과 백성을 위로하고 자했던 넉넉하고 고즈넉함을 선사한다. 이외에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 사비시대 왕릉원에서는 신라 및 가야와는 다른 백제 왕의 위엄과 정교함을 만날 수 있다.

한편 2012년에 출범한 재단법인 백제 세계유산센터는 전북과 충남,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공동 출연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센터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팸투어, 전시회, 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 중 팸투어는 언론, 관광업체, 인플루언서, 일선 학교 등 매체 특정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가 6일 전북체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전라북도체육회 고문들과 소통 행보에 나섰다.

## “전북체육 발전에 함께 힘 모으자”

### 김관영 도지사, 체육발전 노고 도체육회 고문들과 소통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체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전라북도체육회 고문들과 소통 행보에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6일 김관영 지사는 전북체육회 고문 20여명과 자리를 함께하고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현장을 누비며 전북 체육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이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육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해 오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자주 만나고 얘기를 나눠 전북인의 자긍심을 높여 줄 체육 발전

에 더욱 기여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고문님들의 사랑과 격려가 전북체육 발전의 원동력을 기억하겠다”며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더불어 전북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체육회 고문들은 “체육회와 깊이 있게 소통하고 전문체육 우수선수 발굴 육성 등 지방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뒷받침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언론단체, 여행사,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9~30일 열린 팸투어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미리 준비하세요”

### 전북도, 시군별 긴급복구반 운영

전북도는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겨울철 상수도 동파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계량기, 관로 동결 등 동파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긴급 복구자재와 비상급수 장비를 비축하고, 상환반과 긴급복구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동파사고가 발생할 경

우 신속하게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피해는 주로 영하의 기온 특히,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오랜 기간 지속될 시 이를 이상 지속될 때 폭증하며, 계량기 보온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기구에서 주로 발생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계량기 동파 1,527건 중 보온 조치 미흡 등 계량기 관리 소홀로 인해 1,348건

(88.3%)의 계량기 파손이 발생함에 따라 무엇보다 주택 소유주의 계량기 내 보온재, 보온팩 등 각별한 사전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량기함 내부를 보온팩이나 헌옷으

/김재훈 기자

### 전북 탄소기업-혁신기관 소통 설명회 개최

전북도는 6일 더메이호텔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탄소산업의 재도약을 향한 탄소기업-혁신기관 소통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탄소수소

융합산업연구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도내 탄소기업 및 혁신기관이 참석해 탄소산업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고 기업-기관 간 상호협력하는 소통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전라북도, 전주시)를 포함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KIST 전북분원 등 6개의 혁신기관과 45개의 탄소기업이 참석했다. 국내·외 탄소산업 최신 트렌드 및 기술동향 발표, 국가기술개발사업 수주 및 지원절차와 기업이 활용가능한 장비에 대한 설명, 도내 탄소 관련 혁신기관들의 역할 및 사업소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현황과 협조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소통 설명회에서는 전북에서 탄소융복합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기업들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재훈 기자

## 도, '전북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 성료

전북도는 6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전라북도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도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쉽게 적응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이번 2023년 전라북도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전북도, 시·군과 운영사인 케이티씨에스(KT CS)가 함께 올 한해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강사와 서포터즈 시상 및 소감 발표 등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에서는 14개 시군이 참여해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디지털배움터 58개소 운영 △디지털 체험존 16개소 설치 운영 △교육 인원 259명 달성 △교육 인원 5만9,872명의 도민이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누렸다. 특히, 올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기업이 필요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디지털 맞춤형훈련을 운영하고, 교육을 수료한 장애인의 디지털 체험존, 한국도주주택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7명 취업 성공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전북노인일자리센터와 연계해 고령층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활용 맞춤형 훈련 교육과정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 교육수료자 6명은 구청, 주민센터,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돕는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 2023년도 전라북도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유공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kt cs 전북디지털배움터 박승열 센터장은 “시니어, 장애인, 소상공인 등 도내 다양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상생해 나가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전북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도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장애인의 취업 및 고령층 일자리 기회 확대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교육 환경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